



무라오 야스코
 작가 무라오 야스코
 무라오 야스코씨의 약력
 1944년 야마구치현에서 출생
 1994년 시마네현 문화장려상
 2009년 그림소설 「크라우디아의 기도」로 제 14회 그림책대상독자상수상
 주요작품: 「강의 흐름을 바꾼사람 스도야헤이 周藤彌兵衛」 「생명을 지켜보며」 「크라우디아의 기도」, 등 다수.
 시마네현 가와즈시「江津市」거주.

村尾靖子(むらおやすこ) 作家。1944 年山口県に生まれる。1994 年島根県文化奨励賞。2009 年絵本「クラウディアのいのり」第 14 回日本絵本大賞読者賞受賞。主な作品: 「川の流れを変えた人 周藤彌兵衛」「命をみつめて」「クラウディアの祈り」、他多数。島根県江津市在住。

一歳のとき、戦争で大火傷を負い、軒下を借りた農家でもらった、一杯の水。それが、私の命を救いました。命の源である、水にかかわって、リーダーとしての役目を果たした主人公の生き方が、私の中の水の記憶を呼び戻し「悠久の河」の作品ができました。……災害から村と村人たちを救うために、立ち上がった庄屋の一族がいた。のどかな村を取り囲むように流れる意宇川(いうがわ)。日頃は村の民に幾多の恵みを与える川も、大きな岩山が張り出し、水の流れは曲りくねり、流れが細くなっている場所があったため、一度、大雨に見舞われると、川の流れは濁流となり、村を呑み込んだ。家屋は喪失し、多くの人命が失われ、村は壊滅寸前となった。災害に怯える村人たちを前にして、生涯をかけて岩山と格闘する決意をした庄屋、周藤彌兵衛(すとうやへえ)。「村の民の幸せが無ければ、庄屋の幸せは無い」との思いから、身代(しんだい)をかけて、岩山に挑むこと、実に 42 年。現代社会にも通じる彌兵衛の願いとは、精神とは、行動力とは……。

Yasuko Murao, writer. Born in 1944 in Yamaguchi Prefecture, Japan. Resident of Gotsu City, Shimane Prefecture at present. Awarded Shimane Prefectural Culture Encouragement Prize in 1994. Awarded the 14th Japan Picture Book Grand-Prix Readers' Prize in 2009 for her picture book *Claudia's Prayer*. Main Works: *Sutoh Yahee—a Man Who Changed the River Stream*; *Facing Her Own Life*; *Claudia's Prayer*; and many others.

When I was one year old I got seriously burnt in the war. Then a farmer gave me a bowl of water under the eaves of his house which saved my life. *The Eternal River* was written as a result that the life of a man who got deeply involved with water, the origin of all lives, and played the role of a leader reminded me of my old memory of water. ……Some 360 years ago, there lived a man called Sutoh Yahee, a village headman, and his family, who stood up to save the village and villagers from natural disasters. The Lukawa River ran down peacefully around the village, and brought about rich blessings to the villagers. However, it hit a big rocky mountain on the way, where the river was narrow and had many sharp bends. When hit by heavy rain, the river became a muddy torrent and swept away the village. Houses were lost, people were killed, and the village was practically destroyed completely. Seeing how frightened the villagers were, Sutoh Yahee, the headman, decided to devote his entire life to fight with the rocky mountain. He said, "My happiness comes only after the villagers' happiness." Then he spent all his fortune and 42 years of his life to fight with the rocky mountain. What is his real desire, spirit and dynamism which never fade even in our modern society?

村尾靖子女士略历 作家 村尾靖子(MURAO YASUKO)。1944 年 生于山口县。1994 年 获岛根县文化奨励賞。2009 年 漫画书《Claudia 的祈祷》，获第 14 次日本绘本大奖读者奖。主要作品 《改变河流向的人 周藤弥兵卫》、《凝视生命》、《Claudia 的祈祷》、以及许多其他书籍。住址 岛根县江津市。

在我一岁的时候、因战争受到重度烧伤，寄身于一农家屋檐下得到一杯水，那杯水救了我的生命。与生命起源的水密切相关，充分发挥一村之长职能的主人公的生活方式，让我追回心灵深处的对于水的记忆，写完「悠久之河」作品。

……为了从水灾中拯救村民，有一村长挺身而出。他的家乡有一条叫意宇川(YIWUGAWA)的河流，像要环抱那田园诗般的乡村似的环流于村庄周边。这条河曾经让村民们得到许多恩惠，但由于石山向外突起，使水流曲折，且有一处河床窄小，每逢遇到大雨，河水便泛滥成灾，淹没村庄。房子被冲走，许多人生命被夺去，村庄到了即将毁灭的边缘。看着被灾难所笼罩的村民，村长下决心用毕生精力跟石山搏斗、他就是周藤弥兵卫。他抱着「大家的幸福，就是自己的幸福」的想法，倾注所有财产，向石山挑战，劈山治水 42 年。现代社会需要的弥兵卫的那种心愿，精神和行动力……。

Карьера Ясуко Мурао Писатель Ясуко Мурао Ясуко Мурао родилась в префектуре Ямагути в 1944 году. Префектура Симанэ Культура Премия в 1994 году. Читатели премии по "молитве Клауди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ой книги в 2009 году. Основ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Люди Чжоу Самурай, который изменил течение реки", "глядя на жизнь", "молитву Клауди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рефектура Симанэ Гоцужитель.

Предисловие господина Ясуко Мурао Когда мне была один год, была ранен из-за огня. Тот момент вода мне жизнь спасла. И с того момента началась у меня жизнь как писатель. Я создала сказку,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неразрывной судьбе между одного великим человеком и водой. Тот мой роман так назван по имени «Вечная река». Около триста шестидесяти лет назад, жил бы старейшина рода. Для спасения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от наводнения он смыло выступил вперёд их защищать. На его родине есть река по имени реки Югава (YUGAWA). Самая река вскармливала народа,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а вытекла из горы, ток ее был извилистым. И когда шел большой дождь, река сильно разливалась из низкого русла. Многие люди погибли, и само село тоже находилось на крае гибели. Смотрев на пострадавших,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ого зовут Судо Яхью(Suto Yahee), решил затратить всю свою жизнь,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 паводком. У него была такая мысль: если бы не было блага у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то не было бы расцветания своей родины. И он вложил все свое имущество, затратил сорок два года, боролся с паводком. В современной эпохе такой дух тоже понадобитс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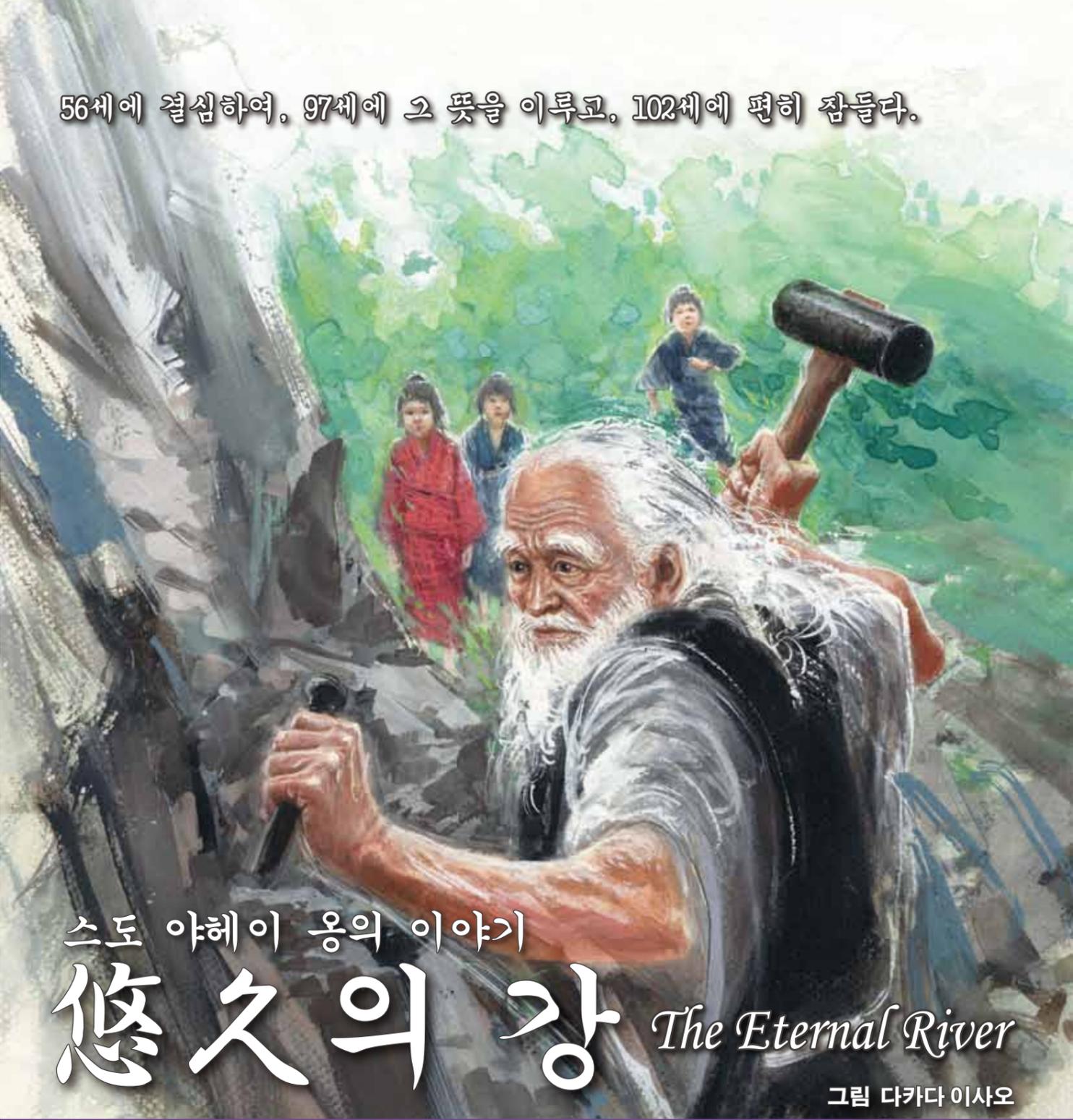
번역 영어: 나카무라 신이치로, 중국어: 웨이 야링, 러시아어: 우다썬

클라우드의 선두 - 종합물관리시스템「아쿠모水神」- 6월1일 전파의 날, 8월1일 물의 날, 8월 11일 산의 날

코마츠전기산업주식회사
 우편번호 690-0046 시마네현 마츠에시 노기후쿠토미초735-188
 TEL 050-3161-2490 FAX 050-3161-3846
<http://www.komatsuelec.co.jp/>

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본 팸플릿을 5개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ns.gr.jp/>

56세에 결심하여, 97세에 그 뜻을 이루고, 102세에 편히 잠들다.



스도 야헤이 옹의 이야기

悠久의 강

The Eternal River

그림 다카다 이사오

「화양(和讓)의 문화」창조를 지향하며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인류의 특성과 역사를 고찰, 적극적 평화주의로 일관하며 대립·통합·발전이 순환하는 「화의 문화」창조의 틀을 만들기 위해, 2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세계 각 국의 전쟁과 평화 기념관을 방문하고, 민간 외교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건너편에 위치하며 일본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마네현이, 2005년「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함으로써 동아시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베르타·폰·즈토녀여사의 서거, 일본의 한국 합병으로부터 1세기가 지나는 2014년 6월, 오스트리아 빈으로부터 「국민 연합·국제 평화 센터」구상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3대 핵대국(미·러·중)의 결렬적인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비핵화와 모든 핵 보유국의 단계적인 핵삭감 동시시작을 제언합니다.

英·韓·中·러시아어 팸플릿을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 Korean
 Chinese / Russian

스도야헤이옹과 수로를 낸 이우천의 사계를 표현한 아쿠모칠기 광반

번역 한국어 김미정

미래를 개척하는 원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스토야헤이웅 (1651-1752 이즈모국 히요시 마을: 현 시마네현 마츠에서 야쿠모 마을)은 쓰루기산의 딱딱한 안산암을 불로 데우고, 끌과 망치로 깎아 내어 홍수를 거둬내는 이우천(意宇川)의 흐름을 바꾸어 마을 사람을 구했습니다. 56세부터 97세까지 42년에 걸쳐 쓰루기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완성해내고, 102세에 운명하였습니다. 스토야헤이웅의 일생을 그린 소설 <悠久의 강>을 일본수도신문에 2014년 7월 부터 연재하여 한·영·일·중·러의 5개 국어로 출판하고, 그와 함께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산둥성에서 스토야헤이웅의 대형동상을 제작하여 야쿠모 마을에 건립합니다. 이야기의 무대인 이우천(意宇川) 유역에는 일본 궁내청 직속관할인 고분과, 불의 발상지인 구마노 대사(熊野大社), 국보 가모스 신사(神魂神社), 인연을 맺어주는 신사로 유명한 야에가키 신사(八重垣神社)등, 고대 문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60년 대에는, 쓰루기산으로 이어진 요가이산(要害山)을 다이너마이트로 무너뜨리고, 시마네 원자력 발전소의 기초 공사용 채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구의 강」이 만들어진 지역을「和의 문화」창조의 원점으로 인식하고, 정보 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세계적 스토리를 그려나감으로써, 그 실현을 향한 급속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스토야헤이웅 동상

1994년,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 한 마을 한 뜻 알리기 운동을 시작, 향토의 치수의 위인에 대한 소설·아동문학·만화출판, 심포지움 개최, 테마곡 제작, 합창대회 주최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일·중 국교 정상화 3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중국 산둥성조장시(棗莊市)에서 공자, 맹자, 스토야헤이웅 등 4개의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조장시 태아장(棗莊市台兒莊)은 제2차 세계대전중,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이 이루어 진 곳으로서, 마츠에 보병 제 63연대(시마네현·돗토리현)가 큰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또 한번 스토야헤이웅의 대형동상을 제작되, 금년 6월에 완성되어, 8월 1일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 성립 후 최초로 맞이하는 「물의 날」에 시마네현 마츠에서 야쿠모 마을에 건립 됩니다. 동상의 설치에 맞추어 직물과 신소재를 조합하여 전통공예인 칠기(야쿠모칠기)를 발달장애아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여, 신산업창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츠에서 야쿠모마을「메다카(송사리)논어 보급회」로 부터 시작된 논어 낭독회가 현재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회와「스토야헤이웅 현창회」가 협력하여 거대 동상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추진중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 잉그리드 롤레마씨와 코마츠이사장

베르타·폰·즈토너 조각

베르타·폰·즈토너(1843 ~ 1914)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앞선 1989년, 베스트셀러 소설『무기를 버리자』를 발표. 1891년 알프레드 노벨의 지원에 의해 오스트리아 평화협회를 설립하고, 국제적인 평화활동을 전개하여, 1905년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국의 앤드류카네기의 기부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시에 건설된 평화궁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조각가 잉그리드 롤레마씨가 제작한 즈토너여사의 동상이 헤이그시에 건립되었습니다. 이번에 롤레마씨에 의해 제 2호 동상이 제작되어, 즈토너 서거후 100주년인 2014년 6월부터 빈의 평화기념관(즈토너가 사망한 장소)에 6개월간 전시되며 그 이후 일본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세계각국에 이 조각이 있달아 건립되어, 즈토너의 뜻이 되살아나, 평화활동의 자금이 조성되어 확실한 평화에의 흐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원점 코마츠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반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이키오



2014년 중국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국제평화센터」 구상

일찌기 오키나와는「만나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있었듯이「평화의 섬」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전 사츠마번의 침공, 메이지 정부에 의한 류큐처분, 또 태평양 전쟁 말기의 오키나와전에서 약 20만명이 희생당하는 등, 「피해의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반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으로 향하는 미군의 전진 기지로서, 「가해의 섬」이라는 측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다짐하는 시설로서「국제평화센터」를 창설하여 「세계항구평화발상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국제평화센터」는 다음의 세가지 주요시설에 의해 구성됩니다.

(1) 세계전쟁평화 영상센터

정보 통신 기술(ICT)로 세계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의 네트워크망을 구축. 각 시설의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전 세계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으로의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2) 메모리얼타워

전 세계로부터 근대전쟁의 전체 전몰자의 전자데이터를 수집하여 영원히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메모리얼타워 건설

(3) 和의 전당

「和의 文化」를 생성시키는「和의 殿堂」을 최첨단 과학기술과ICT를 활용하여 건설. 평화회의, 평화공헌자의 표창, 「知的 올림픽」등을 개최.

- | | |
|----|-------------------|
| 한국 | ① 1997년 독립기념관 |
| | ② 2005년 안중근의사기념관 |
| | ③ 2005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 중국 | ④ 2001년 항일전쟁기념관 |
| | ⑤ 2014년 항일전쟁기념관 |
| | ⑥ 2005년 난징대학살기념관 |



2009년 러시아
⑦ 하바로브스크 제2차 세계대전위령비
⑧ 하바로브스크 평화위령공원
⑨ 블라디보스토크 전쟁 체험자와 의견 교환회



2005년 미국·하와이
⑩ 아리조나 기념관
⑪ 미즈리호 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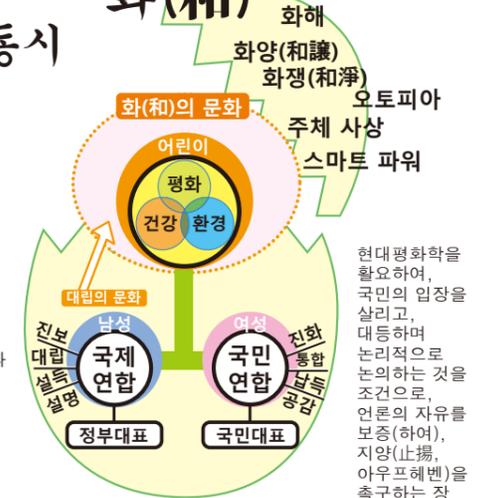
「국민연합: 国民国連」 구상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2008년 12월, 중·일·한·영 4개국어 번역본 『중국 고전 명언록』의 출판에 맞추어, 북경에서「국민연합: 国民国連」의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UN은 193개국의「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강대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 国民国連」은 역사적 경위를 활용하여, 윤리적 토의를 통해, 보다 더 잘 살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国民代表」로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중국의 화해(和議), 이즈모에서 탄생된 화양(和讓), 한국의 화정(和諍)과 「오토피아 Oughtopia」, 미국의「스마트파워」, 북한의 「주체사상」등을, 교양·예술·유모어로 조화시켜「和의 文化」가 생성되는 장이 바로「국민연합: 国民国連」입니다.

【和議】 2004년에 중국이 발표한「각 계층간의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자」라는 슬로건
【和讓】스마트파워의 발표에 이어 성덕태자의「和로서 고귀함을 이룬다」라는 말의 「和」와, 니노미야손토쿠윙(二宮尊徳翁)의「추양: 推讓, 의 「讓」을 조합하여, 이즈모대사교(出雲大社教)의 선가다치코(千家達彦) 관장의 양해를 얻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세 개의 소프트파워(감성을 가미한 지혜, 시명, 회화력)과, 두 개의 하드파워(집단지 조직, 도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전체의 문맥속에서 통합함으로써 생기는 힘」, 【스마트파워】미국의 오바마정권이 채용한 개념으로 세 개의소프트파워(감성을 가미한 지혜, 비전, 대화력)과, 두 개의 하드파워(조직력, 권모술수)를 「전체 문맥을 바탕으로 융합하는 힘」.

줄탁동시

화(和)



1945년 알타 회의에서 합의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5개국을 상임 이사국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가맹국의 지속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의 장

현대평화학을 활용하여, 국민의 입장을 살리고, 대등하며 논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증(하여), 지양(止揚, 아우프헤벤)을 추구하는 장